

신당, 호남·수도권 '모바일 공천'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총선 사상 최초로 내놓은 '모바일 공천' 구상이 4·9 총선 입지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신당은 모바일 투표판으로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과정에 모바일 투표 결과를 일정 비율 반영하고 호남과 수도권 일부 등 상징성이 큰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모바일 공천 지구를 선정,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우상호 대변인은 11일 "공천에 국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투표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기존 경선을 모바일로 완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선방식에 모바일투표를 제한적으로 일정비율을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 퍼센트를 반영할

상징성 큰 경합 지역 대상 시범 실시 검토 여론조사기법...반영비율 20~50% 수준

것인지, 어느 지역에 도입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성된 설계안을 가지고 할 것"이라며 "어떤 지역에서는 경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모바일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훈 공천심사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모바일 투표도 여론조사의 한 방법으로 경선방식에 모바일투표를 제한적으로 일정비율을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 퍼센트를 반영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도입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성된 설계안을 가지고 할 것"이라며 "어떤 지역에서는 경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모바일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안팎에서는 모바일 공천 대상 지역으로 전체 243개 지역 중 '50±α'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모바일 투표 반영 비율은 20%~50%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공천은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동원경쟁이 벌어지면서 조직·금품 선거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나아가 조직력에서 우세한 현역 의원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커 '물갈이'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때문에 조직과 동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여론조사 기법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단순한 지지도 설문을 넘어선 현역의원의 의정평가를 포함한 모바일 여론조사가 실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신당이 모바일 공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헌개정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이용섭·장병완씨 신당 입당

각각 목포·광주 광산·광주 북갑 출마 표명

4·9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김대중(DJ) 전 대통령측 박지원 비서실장과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용섭 전 건교부 장관이 11일 신당에 입당했다.

목포 출마 의사를 밝힌 박 실장은 이날 측근을 통해 당산동 당사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실장은 이로써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청와대 공보수석으로 임명된 이래 10여 년 만에 당적을 갖고 정치활동에 나서게 됐다.

박 실장은 "50년 전통 민주평화회

역세력의 집합체인 신당 창당에 기여했고 신당과 함께 (이명박 정부) 경제 세력을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며 "총선에서 겸손한 자세로 목포 시민의 심판을 받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병완 전 장관과 이용섭 전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손학규 대표를 면담하는 등 입당신고식을 마쳤다.

장 전 장관은 광주 북구 갑에서, 이 전 장관은 분구가 예상되는 광주 광산구에서 출마할 예정이다.

장 전 장관은 이날 "국정경험을 바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가 11일 국회 대입실에서 신당에 입당한 장병완(오른쪽)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용섭(왼쪽) 전 건교부 장관과 손을 잡고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광뉴스

탕으로 정치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재정민주화에 기여하고 싶다"며 "지난해 대선 결과는 정치적 패배이지 정책적 패배는 아니었다. 지난

10년의 성과가 모두 실패한 것처럼 매도당하는데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며, 차기 여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홍업·박지원 심사도 원칙대로"

박재승 대통합민주신당 공천심사위원장은 11일 최고 당 내외에서 공천 논란이 일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의원과 박지원 비서실장 등의 공천 문제와 관련, "공천의 기본 원칙과 방침, 기조에 있어서 전혀 예외가 없고,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공천에 있어서 차별 없이 계파를 인정하지 않고 할 것"이라며 "국민이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평가자료를 확보해서 구체적인 방침이나 방향을 충분히 논의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신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해 당연히 공천을 줄 것이라는 정치권의 예측과는 다른 입장으로 유사시 탈락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그는 호남권 물갈이론에 대해 "어느 지역을 물갈이한다는 섬뜩한

민주신당 박재승 공심위원장

대대적 '호남 물갈이' 예고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다만 호남이 차지하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호남 변화의 질과 양이 신당 변화의 질과 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그만큼 엄격하고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내현 "지속적인 노동자 재교육 필요"

4·9 총선 현장

임현모, 14일 北甲 선거사무소 개소



○임내현 복구를 예비후보는 11일 광주 연세직업전문학교를 방문,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표심 잡기에 분주.

임 후보는 이날 "노동자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국회에 입성, 노동자 평생 교육 시스템 체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며 지지를 호소.



○임현모 복구 갑 예비후보는 오는 14일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지역 표밭 다지기를 본격화할 예정.

임 후보는 "복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광주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면서 개소식 이후 주민과의 접촉 기회를 강화한다는 계획.

양성철, 담양·곡성·장성 출마 선언



○양성철 전 주미대사는 11일 담양·곡성·장성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대통합민주신당 공천 경쟁에 가세.

곡성 출신으로 언론사 기자, 경제대 교수, 주미 대사 등을 지낸 양 전 대사는 이날 "15대 국회 때 곡성·구례 지역구 의원을 지내면서 주민들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면서 "지난날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지역 과제를 달성하고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 간 통일 정책의 조율 등 새로운 외교 현안들을 국회 차원에서 이끌어가기 위해 4월 총선에서 꼭 승리해 건전한 비판 세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표명.

정재훈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동참함"



○정재훈 남구 예비후보는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새로운 정치문화 정립을 위한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활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

동아병원 원장인 정 후보는 11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국민 사랑의 메스를 들고 사회의 아픔을 치료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다짐한 뒤 "선거 운동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지지자까지 적어 되는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선거 문화를 정립하자고 주장.

민형배 "새 정부 호남 소외 중단됨"



○민형배 광산구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발표된 새정부 대통령 실 수석 비서관 인선과 관련, "이번 인사는 호남 지역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요, 철저하게 소외 시키겠다는 무언의 선언"이라고 비난.

민 후보는 논평을 통해 "이번 인선은 이명박 정부가 사대에 역행하는 차별정부로 규정될 것임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며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같은 정책 기조를 또다시 반복하거나 지속할 경우 호남인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이형석 "힘 있는 대변자 필요" 北乙 출마



○이형석 전 청와대 사회조정 비서관이 11일 "할 일은 하고 할 말은 하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북구 을 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

이 전 비서관은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의 독자적 로드맵이 만들어져가는 상황에서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시민의 대변자가 돼야 한다"면서 "광주시의회 의장과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살찌우고 광주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당부.

최병근, 나주·화순 예비후보 등록



○최병근 변호사가 최근 나주·화순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대통합민주신당 공천경쟁에 합류.

화순 이서 출신으로, 신농중과 광주대동고,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최 후보는 "앞으로 화순에 상주하면서 지역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며 "고향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살맛나는 화순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베이징 키오아

중국 특산물 전문점

북경 동오마구이

각종 단체 게모일권수 (대형 불판)

972-5282

베트남 국제결혼

국제결혼! 선택이 중요합니다

900만원대로 매달을 맞이하세요

아오자이국제결혼

062)232-8966 / 010-5256-8966